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긴장감’ 보다는 ‘활기’ 가득

마스크를 쓴 채
부모님과 손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복직’

등교 개학 첫날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
설렌 기색 ‘역력’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시작한 27일 오전 전주 관내 초등학교 앞은 긴장감보다는 활기로 가득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쓴 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발열체크를 하느라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이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이라 보니 등교를 시켜주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았다.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학교에 오는 1학년 학생들은 설렌 기색이 역력했다.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K씨는 “학교 방역이 어느정도 됐는지 몰라 조금 불안하지만, 오랜 시간 집안에서만 있다가 보니 아이가 가정학습도 지루해하고 또래 친구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잔뜩 들뜬 상태”라고 전했다.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신신 당부 하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에 교문 밖에서 “잘 다녀오라”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전주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고 있다.

한편 이날 추가 등교하는 전북 지역 학생은 8만1,133명이다. 이중 유치원생은 2만2,727명, 초등1~2학년은 3만5,977명, 중3은 1만5,736명, 고2는 1만7,676명이다.

지난 20일 고3에 이어 27일부터 고2와 중3 및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개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가 미뤄진 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 87일 만이다.

또한 6월 1일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6월 8일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등교 개학한다. /정은성기자

추가 등교 도내 학생 8만6133명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 미뤄진 채 온라인 수업 시작된 지 87일만
내달 1일 초등 3~4·중 2·고 1학년
8일에는 초등 5~6·중 1학년 등교 개학

초등1~2학년 등교 개학 ‘현장 속으로’



한 교사가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에게 손 소독을 시켜 주고 있다.



27일 전주 호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입학식이 치러지기 전 새내기들과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있다.



학교 교문앞에 도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초등학교 입학식을 학교 울타리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

